

영주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in Yeongju and
Propagation the Avatamsaka Icon of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이주민
Lee, Ju-min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29\)](#), 2013.12, 441-495(55 pages)
[SILLASAHAKPO \(29\)](#), 2013.12, 441-495(55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385>

APA Style 이주민 (2013). 영주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 신라사학보(29), 441-4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6 11: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영주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

이 주 민*

- | | |
|----------------------------|-------------------|
| I. 머리말 | IV. 의상의 화엄전파와 부석사 |
| II.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조상경위와 배경 | 소조불좌상 도상의 계승 |
| III.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분석 | V. 맺음말 |

【국문초록】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크기가 2.75m에 달하는 대형 소조여래좌상이 (국보 제 45호)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시기와 도상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에 많은 수리를 거치면서도 부석사가 창건된 7세기 불상의 원형을 나름대로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불단 아래에 고식의 방형 와적대좌가 남아있는 점이나 王京의 성전사원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녹유전이 무량수전에서도 발견된 점 등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x-ray 조사를 통해 불두가 목 부분에서 접합된 것이 확인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의상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아미타불이지만 향마촉지인의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과도기적 모습인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견편단을 한 항마촉지인의 가장 이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의 항마촉지인 불상의 도상은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대의 끝단을 넓은 띠처럼 표현한 '석굴암계'와 같은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이지만 대의 끝단이 밖으로 접혀지거나 여러 개의 주름으로 표현되는 '부석사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이 통일신라는 물론 나말여초까지 불좌상 구성에 있어 중요한 範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은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갈항사지 석불좌상을 포함하여, 포천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불좌상들, 화엄십찰 중 하나인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949년경) 등 나말여초기의 중부지역 소재 불상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지역 일대에서 대의 깃이 밖으로 접히거나 주름이 진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상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역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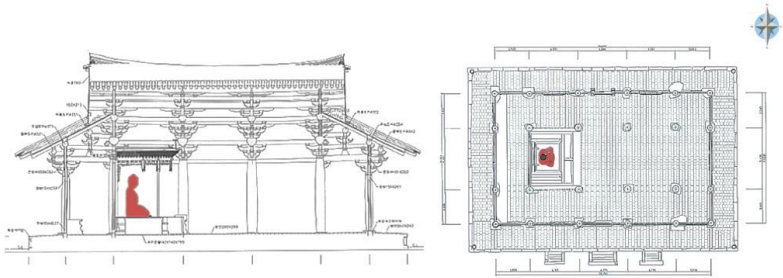
주제어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의상, 화엄종, 화엄십찰, 원응국사, 외적대좌, 녹유전, 초기 항마촉지인, 우견편단, 궁예, 세달사.

I. 머리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도 1> 앓은 크기가 2.75m에 달하는 대형 소조불좌상이(국보 제45호) 봉안되어 있다. 東向을 <도 2> 하고 있는 이 불상은 고려시대까지 현존하는 소조불 가운데 가장 큰 상으로, 圖像 면에서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본존상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학자에 의해 목조석가불로 추정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해방 후 조사를 통해서 부석사 소조불좌상 존명이 석가불이 아닌 아미타불임이 알려지게 되었고, 불상의 소재도



〈도 1〉 부석사 위성사진과 배치도



〈도 2〉 부석사 무량수전 횡단면도와 평면도

목조가 아닌 소조임이 밝혀졌다.²⁾

그동안 부석사 소조불좌상 조성의 배후문제를 뒷받침할 만한 사적기나 명문 등이 발견되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 964~1053)을 통해 존명이 알려진 이후에도 여전

- 1) 中吉 功, <浮石寺釋迦如來像に對する考察> 《新羅·高麗の佛像》, 東京: 二玄社, 1971, 361~370쪽. 일본인 학자들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을 근거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석가여래상으로 추정했으며, 재질도 소조가 아닌 목조로 보았다.
- 2) 黃壽永, <浮石寺 塑造阿彌陀如來像> 《佛教美術》 3, 1977, 8~9쪽.

히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조성시기와 도상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³⁾ 그러나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여러 면에서 소조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상으로 우리나라 조각사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조각이니 만큼 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주변자료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부석사 소조불좌상 방형의 외적대좌와 두부 접합 흔적 발견을⁴⁾ 계기로 그동안 고려시대 작품으로 이해되던 불상의 편년이 의상 창건 당시인 7세기 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했다.⁵⁾ 이를 밝히기 위해 의상이 唐에서 유학했던 10년(661~671) 동안의 행보 및 그가 이룩했던 화엄사상의 이해를 토대로 부석사 소조불좌상 조성배경을 살피고,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형식 및 양식적 분석을 통해 7세기 말 조성 당시 원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화엄종 전파와 의상의 손제자인 신림이 창건한 세달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
- 3)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아미타불이 유행하던 7세기 말 의상이 우견편단의 향마촉지인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석가불 도상으로 알려진 향마촉지인을 아미타불 도상으로 변용할 만큼의 시대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黃壽永, 앞 논문, 8~9쪽; 鄭恩雨,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韓國의 國寶》, 문화재청, 2008, 369~373쪽; 주수완, <향마성도상과 신라 화엄종 미술의 형성-부석사 무량수전 촉지인 불좌상 해석의 몇 가지 문제점> 《선사와 고대》 37, 2012, 63~88쪽 참조.
- 4)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86~90쪽.
- 5)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편년에 대해서 金元龍 교수는 新羅末期까지 올려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하였고(金元龍, 《韓國 美術史》, 汎文社, 1973), 秦弘燮 교수는 신라불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조성은 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322~323쪽). 黃壽永 교수는 신라 창건 이래 불두를 제외하고 크기와 양식에서 근본적인 변형 내지 새로운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黃壽永, <浮石寺 塑造阿彌陀如來像> 《佛教美術》 3, 1977, 8~9쪽).

궁예의 지배지역이었던 중부지역 소재 불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들 불상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후대 불상 조성에 끼친 영향을 조명해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위상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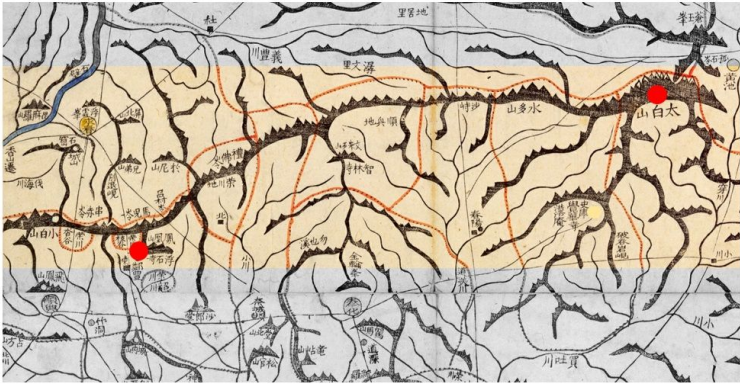
II.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조상경위와 배경

부석사는 鳳凰山을 主山으로 太白山에서 小白山으로 내려온 주맥이 중간에서 남쪽으로 흐르다 솟아오른 봉우리에 위치해 있다<도 3>. 이곳은 단양·청주·괴산 쪽으로 넘어가면 舊百濟 지역에 이를 수 있고 영춘·제천·원주로 이어져 舊高句麗 지역으로도 통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다. 또 남쪽으로 안동·의성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鳥嶺을 넘어 문경·상주·선산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함께 고구려 문화가 신라로 유입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였고,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라와 고구려의 영토분쟁이 벌어진 지역이기도 한 곳이다<도 4>.⁶⁾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義湘 625~702)은 唐의 智儼으로부터 華嚴學을 배운 후 귀국하여 海東華嚴初祖가 되었다.⁷⁾ 《三國遺事》는 唐이

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善德王 11년 冬 ;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20~221쪽 ; 죽령을 통해서는 안동→영주→풍기→단양→제천→원주로, 계림령을 통해서는 예천→문경→계림령→충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54·193·204쪽 참조.

7) 義湘의 기록에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義湘의 法諱이다. 기록에 의하면 義湘·義相·義想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金知見은 義湘의 한자 표기가 그 동안 학계에서 사용된 ‘義湘’이 아니고 ‘義相’이고 이 이름에 義湘 사상의 핵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金知見, <義相法諱考> 《曉城趙明基博士追慕 佛教史學論文集》, 東國大學校 出版部,



〈도 3〉 대동여지도

新羅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의상이 급히 귀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⁸⁾ 의상이 귀국한 뒤 華嚴의 根本道場인 浮石寺를 創建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88. 그러나 김지건이 주장한 바와 같이 義相이라는 法諱가 스승인 智嚴에 의해 작명된 것이라면 義湘이 지엄을 만나기 전에 사용된 法諱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全海住, 《義湘 華嚴思想史 研究》, 민족사, 1994, 88쪽. 이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義湘이란 표기를 따랐다. 해동화엄초조라는 기록은 《宋高僧傳》, 《白花道場發願文略解》, 《華嚴懸談會玄記》 등에서 보인다.

- 8) 義湘傳敎 條에 의하면 歸國時期는 ‘咸亨元年庚午(670)’라 되어있고, 前後所藏舍利 條에 실린 ‘浮石本碑’에 의하면 ‘咸亨二年(671)’이라 되어있다. 義湘은 그의 姓氏와 出家시기, 入唐시기, 歸國시기, 入寂시기 등에 있어 기록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歸國의 시기에 있어 《三國遺事》안에서도 그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 高翊晉은 古板本의 一, 二, 元 등은 선명치 않을 때가 많으므로 부석본비의 ‘咸亨二年’은 現代版의 誤植인 것 같다고 여겨 年代와 干支를 합친 670년 歸國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高翊晉, <國古代佛教思想史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221쪽: 同著,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도 4〉 신라의 육상교통로 (지도출처: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A 儀鳳元年 義湘이 태백산에 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세우고 大乘을 널리 펴니 靈感이 많이 나타났다. 9)
- B 고승 義湘이 王旨를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했다. 10)
- C 의상이 귀국한 뒤에 山川을 두루 다녔는데, 고구려 백제의 바람과 마·소가 미치지 못할 곳에서 말하기를 “이 곳은 땅이 신령하고 산이 빼어나서 진실로 法輪을 굴릴만한 곳이나, 權宗異部の 무리가 5백 가량되니 이를 어찌할까”라고 하였다. 의상은 대화엄교는 福善의 땅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善妙龍이 항상 따라다니며 보호하였는데, 은밀히 이 생각을 알고, 이에 공중에 대신으로 나타나서 큰 돌이 되니, 세로와 너비가 1리 여서 가람의 위를 덮고 떨어질 듯 말 듯한 모양을 하였다. 여러 승려들이 놀라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의상이 드디어 절 안으로 들어갔다. 11)

위의 기록(A, B, C)은 新羅 文武王 16년(676)에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의상과 신라 왕실의 결탁설

9) 《三國遺事》 卷4 義解5 義湘傳教條.
 10)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6年 2月條.
 11) 《宋高僧傳》 卷4, 唐新羅國義湘傳.

이 주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른바 ‘華嚴의 專制王權 理念說’이 그것이다.¹²⁾ 부석사와 전제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浮石寺가 신라 華嚴宗의 根本道場이 되고, 훗날 의상이 浮石尊者로 칭해진 데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부석사는 창건 당시의 정치사회적 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해동 화엄종찰이

- 12) 신라왕실과 불교와의 관계에 있어 주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중대 화엄종과 전제왕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신라 중대 화엄종이 전제왕권의 사상적 뒷받침을 해주었고, 특히 義湘의 화엄사상이 중대왕권과 결부되었다는 내용이 국사개설서에 실릴 정도로 그 과장이 매우 컸다. 즉 화엄사상은 전제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화엄10찰은 중대 왕권이 국가의 진호를 위해 설정한 新羅5岳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華嚴一乘法界圖>의 ‘一卽多 多卽一’의 내용이 바로 일반 국민(多)들을 국왕(一)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이념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金文經, <樣式을 통한 佛敎의 大衆化運動-唐·新羅 關係를 中心으로-> 《史學志》 4, 1970, 102~107쪽;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100~101쪽; 李基白·李基東, 《韓國古代史講座》 I, 一潮閣, 1982, 375~377쪽; 崔柄憲, <韓國佛敎의 展開>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1982). 같은 맥락에서 중대왕권과 화엄종의 관계를 언급한 시대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설에 대하여 1980년대에 반론이 제기되었다. 義湘은 중대 왕실과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며, 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은 모든 구성원의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 왕권의 전제성 강화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것은 초세속의 종교이념을 세속의 정치이념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金相鉉,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 1984: 同著, 《韓國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88, 263~269쪽, 275~294쪽; 高翊晉, <新羅中代 華嚴思想의 展開와 그 影響>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366~381쪽; 金福順, <新羅中代 華嚴宗과 王權> 《韓國史研究》 63, 1988: 同著, 《新羅華嚴宗研究》, 民族史, 1994: 同著, <新羅 下代 佛敎界의 動向> 《新羅文化》, 1994). 이와 같은 논쟁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70년대와 80년대 중후반)의 맥락을 타고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화엄교학 전공자들의 반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논쟁이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라는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 부석사 無量壽殿에는 補處佛 없는 독존의 소조불좌상이 동향으로 봉안되어있다.¹³⁾ 이와 관련해서는 1054년에 만든 원융국사(圓融國師 964~1053)비문에¹⁴⁾ 몇 가지 사실이 전한다<도 5>.



<도 5> 부석사 원융국사비, 높이 186cm, 폭 96cm, 유형문화재 제 127호

一乘 阿彌陀佛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으며 十方淨土를 體로 삼고 生滅相이 없다. <<화엄경>> <入法界品>에 이르기를, 혹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보거나 灌頂하여 授記를 받은 자는 모든 法界에 충만하여 처소와 빈 자리를 보충한다고 하였다. 불타는 열반하지 않고 비는 때도 없다. 그런 까닭에 좌우보처보살을 조성하지 않으며 탑도 세우지 않으니 이것이 화엄 일승의 깊은 뜻이다. <圓融國師碑文>¹⁵⁾

<圓融國師碑文>에서는 창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협시보살 없이 아

- 13) 무량수전과 같이 건물의 진입 방향과 불상을 모신 방향을 다르게 처리한 예로 영광 불갑사 대웅전, 대진 고산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아미타여래를 모신 불전은 아니지만 무량수전과 공통된 공간 구성 의도가 느껴진다.
- 14) 圓融國師의 속성은 김씨, 속명은 決凝, 字는 慧日, 溟洲人, 龍興寺에서 출가, 만년에 부석사에 머물렀으며 문종 7년(1053) 부석사에서 입적, 부석사에서 대장경을 印寫하여 부석사와 안국사에 봉안했다.
- 15) “曰師智儼云一乘阿彌陀無入涅槃以十方淨土爲體無生滅相故華嚴經入法界品云或見阿彌陀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充諸法界補處補闕也佛不涅槃無有關時故補處不立影塔此一乘深旨也” <圓融國師碑文>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1919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文庫, 1995.

미타불상 한 구만을 모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좌우보처가 없이 아미타불만을 모신 것은 <圓融國師碑文>이 새겨진 1054년 이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불상의 현상과 양식분석을 통해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했을 7세기에 불상의 원형을 추정하여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위상과 성격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표 1〉 부석사 소조불좌상 불사 관련 기록

No	西紀	干支	내용	출처
1	676	唐 儀鳳 元年 丙子 新羅 文武王 16年	義湘大師浮石寺創建法殿有大尊像 號曰彌陀亦法師之造成也	鳳凰山浮石寺改椽記 順興邑誌佛宇條 無量壽殿懸板衰書 朝鮮寺刹史料上券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2	1358	元 順帝 18년 高麗 恭愍王 7年	敵兵火其堂尊容頭面飛出烟焰中在 于金堂西隅文藏石上	鳳凰山浮石寺改椽記
3	1376	明 洪武 9年 丙辰 高麗 禔王 2年	彌陀像改造改金	鳳凰山浮石寺改椽記
4	1618	明 萬曆 46년 朝鮮 光海君 10年	萬曆四十六年歲次戊午五月初十日 於閣後芳岫列示後	無量壽殿須彌壇上寶蓋背面板 墨書
5	1723	清 癸卯 6月 朝鮮 景宗 3年	無量佛改金	安養門重修記無量壽殿佛像改金 記文
6	1767	清 乾隆 32年 朝鮮 英祖 43年	改舊從新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Ⅲ.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분석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높이 2.75m, 어깨 폭 1.24m, 무릎 폭 2.08m의 당당하면서도 장중한 신체와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장육상으로 고려시대까지 현존한 소조불 가운데 가장 큰 상이다<도 6>. 소조불은 파손되기 쉬운 약점도 있지만 경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불상



〈도 6〉 부석사 소조불좌상

제작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¹⁶⁾ 7세기말 의상이 이 불상을 조성했다면 그 시기에 과연 지금과 같은 대형 소조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라지역에서는 6세기의 소조상이 파편으로도 전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소조상이 늦게 알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유물을 통해 판단할 때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소조상 유행이 반세기 이상 늦게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교의 공인이 삼국의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 6세기 후반 고구려, 백제 뿐 아니라 중국 南朝와의 교류를 통해 소조상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眞平王 6년(584)의 皇龍寺 金堂의 중건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선진 불교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고구려와 백제계의 장인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¹⁷⁾ 늦어도 이 무렵에는 신라 불교

16) 崔聖銀,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百濟文化》 49, 2013, 6~37쪽.

17) 崔聖銀,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 23, 2011, 257~258쪽 참조.

계에 소조상이 소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¹⁸⁾ 眞平王 36년(614)에 ‘永興寺의 塑佛像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고 王의 어머니 眞興王妃가 죽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¹⁹⁾이나 진평왕을 이은 善德女王代(632~647 在位)에 소조상에 뛰어난 승려조각가 良志가 활동하였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은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²⁰⁾ 또한 그가 善德女王 4年(635) 창건된 靈廟寺의 丈六三尊像을 제작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신라지역에 대형의 소조불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¹⁾

신라지역의 소조불 조성의 여건뿐만 아니라 의상이 산동 반도에 서²²⁾ 머물다 長安의 終南山 至相寺로 가서 智儼(602~668)의 제자가 된 시기는 龍朔 2년(662)이다. 의상이 당나라 長安에 이르는 먼 여정과 더불어 종남산에 이르기 전에 몇 곳을 방문하거나 머물렀을 정황에 유의한다면, 당시 장안에서 유행하던 대형 소조불을 접하고 부석사 창건 당시 대형 소조불좌상을 조성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도 7>.

18) 崔聖銀, 앞의 논문(2013), 17쪽.

19) 이것은 新羅소조상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永興寺塑佛自壞 未幾眞興王妃 比丘尼死”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6年 2月.

20) “釋良志, 未詳祖考鄉邑, 唯現迹於善德王朝. 錫杖頭掛一布帛, 錫自飛至檀越家, 振拂而鳴, 戶知之納齋費, 帛滿則飛還. 故名其所住曰錫杖寺, 其神異莫測皆類此. 旁通雜譽, 神妙絕比, 又善筆札. 靈廟丈六三尊·天王像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三國遺事》 권4, 義解5 良志使錫條.

21) 崔聖銀, 앞의 논문, 2013, 13~18쪽.

22) 의상이 처음 入唐한 후의 정황에 대해서 《三國遺事》에서는 揚州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宋高僧傳》에서는 登州에 이르러 善妙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시작된 善妙說話는 귀국시 善妙龍으로 변하고 다시 부석사 창건 당시에 神變을 일으켜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로 정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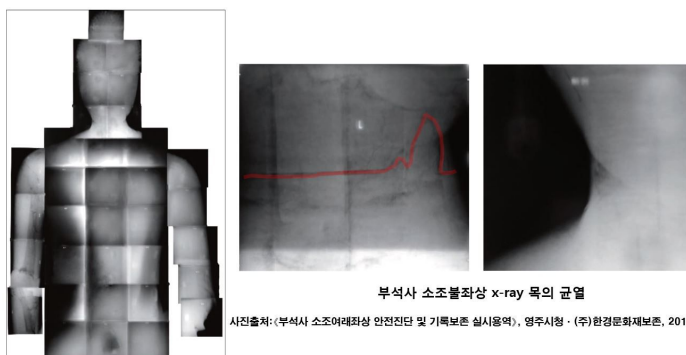
<도 7> 의상 유향 동선

최근 x-ray 조사에서 목 부분에 미세균열과 접합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1358년 왜구들이 전각을 불태워 불상의 머리 부분이 날아갔고, 1376년에 불상을 개조개금했다는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기록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元 順帝 17年 至正 戊戌(1358) 적병이 전각을 불 태워 얼굴이 날아갔다. 병화에 의해 불두가 문장석 위에 올라 있었고, 洪武 9年 丙辰(1376)에 원용국사가 개조개금했다. <鳳凰山浮石寺改椽記>²³⁾

23) 此寺唐高宗二十八年儀鳳元年新羅王 命義相法師始立創建 後元順帝十七年 至正戊戌敵兵火其堂尊容頭面 飛出烟焰中 在于金堂西隅文藏石上 而奏于上 泊洪武九年丙辰 圓融國師改造改金 而至于萬曆三十九年 辛亥五月晦日風雨大作柁其中樑明年□壬子 改椽新其畫彩 儼若旧制也 記其匠碩及勸緣人以示後也 <鳳凰山浮石寺改椽記>(무량수전 후측 서북쪽 모퉁이의 공포 목서)

- 儀鳳元年是 西紀 676年 임
- 元順帝의 戊戌年이면 西紀 1358年으로 順帝十八年の 착오인 듯
- 洪武九年은 西紀 1376年 임
- 萬曆三十九年은 西紀 1611年 임



부석사 소조불좌상 x-ray 목의 균열

사진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8〉 부석사 소조불좌상 x-ray

즉, 불두가 훼손 된지 18년이 지난 후에야 보수를 했고, 현존하는 불상의 모습은 1376년 복원한 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른쪽 팔 내부에서 목재 뼈대가 필름 판독 결과 확인되었고, 불상의 복부 부분에서는 공극이 발견되었다<도 8>.²⁴⁾

14세기에 보수를 거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를 살펴보면 근엄한 인상에 양 볼에 살이 많은 풍만한 양감을 느낄 수 있다<도 9>. 육

<鳳凰山浮石寺改椽記>에 의하면 ‘무량수전은 儀鳳 원년, 즉 文武王 16년(676) 의상에 의하여 창건된 이래 약 600여년 만에 적병에 의해 소실되었고, 홍무 9년(1376) 원용국사에 의하여 법당이 개조되고 불상을 개금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무량수전의 전체적인 변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용국사는 그의 비문에 의하면 乾德 2년(光宗 15년 964)에 출생하여 文宗 7년(1053)에 입적하였으므로 洪武 9년의 개조설과는 년대가 맞지 않는데 이는 수원 창성사 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에 ‘歲壬子住浮石重營殿宇悉如舊蓋爲身後計也’란 구절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高裕燮의 《韓國美術文化史論叢》에 의하면 임자는 恭愍王 21년이므로 改椽記의 洪武9년과는 4년 차이가 난다. 따라서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圓融은 圓應의 誤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86~90쪽.



<도 9> 부석사 소조불좌상 상호

계는 크고 높으며 육계의 중앙에 반원형의 중계주가 표현되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나발이 두상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나발들이 발제선에 배열되어 있다<도 10>. 양감 있는 얼굴에 눈썹과 눈꼬리가 길게 올라갔고, 이마의 백호공에는 구슬이 박혀있다(後補). 얼굴 전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인중은 짧은 편이다. 그에 비해 입술은 도톰하며 코의 폭 보다 길게 표현되어있다.



<도 10>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발제선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는 봉화 북지리 석불좌상이나 군위 석불좌상과 같이 방형의 얼굴에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귀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7세기 초중반 상들과도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신 안압지 금동팔불등과 같은 양감이 강조되어 풍만하면서도 엄숙한 통일신라 초기 불상들과 더욱 친연성이 확인된다<도 11>.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보수가 이루어진 14세기에 제작된 청양 장곡



봉화 북지리 석불좌상, 7세기 중엽 영주 기흥리 삼존석불, 7세기 후반 군위 삼존석불, 7세기 후반 안압지 줄도 금동판불, 7세기 후반



경주 구황동 금제불좌상, 706년 경 감산사 아미타불입상, 719~720년 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 758년경 경주 석굴암 본존불, 8세기 중반

〈도 11〉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 1

사 금동약사불좌상(1346)이나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1346)과 비교했을 때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는 14세기 제작된 상들과 차이가 있고, 1280년 중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의 상호와도 양식적으로 확연히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도 12>.²⁵⁾ 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와 x-ray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

25) 고려후기 불교 조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과 조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14·15, 1966 ; 菊竹淳一, <對馬·壹岐の朝鮮系彫刻> 《佛教藝術》 95號, 毎日新聞社, 1974 ; 姜仁求,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 《美術資料》 18, 1975 ;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 - 坐像을 중심으로 -> 《古文化》 22, 1983 ;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 1983 ; 崔聖銀, <瑞山 開心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고려후기 불교 조각>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15~32쪽: 同著, <13세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2008, 111~151쪽: <목조아미타불상의 조성과 복장 묵서명>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일조각, 2013, 267~310쪽 재수록.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 1280년 중수,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1346년

<도 12>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 2

석사 소조불좌상의 두상은 14세기에 보수를 거쳤으나, 당시 유행하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불상의 원형에 가깝게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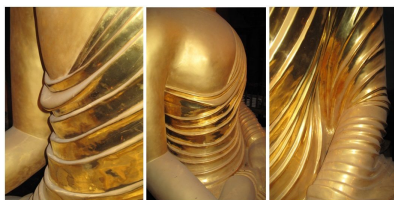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건장한 어깨에 허리 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같은 신체 비례는 장안의 大雁塔址에서 출토된 善業泥 불상과 중국 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상과 비교할 수 있다. 대안탑은 永徽 3년(652)에 건립되었고, 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좌상은 679년 작인 것을 감안하면 의상이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을 접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도 13>.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대의가 신체에 밀착되어 있고 팔과 배 위에는 주름이 층단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도 14>. 무릎 앞 대의 주름은 볼륨 있는 신체에 밀착되었으며 입체적인 주름이 물결치듯 조각되어 생동감이 느껴진다. 특히 오른쪽 발목에서 요철이 있는 좁고 넓은 띠 주름이 팽팽하게 감겨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모습과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주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석굴암 본존불의 부채꼴 형태의 주름과는 구별된다. 이



부석사 소조불좌상 선업니불상, 서안 대안탑 부근 출토, 653년경 중국 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 679년

〈도 13〉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신체 비례 비교



〈도 14〉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런 형태로 펼쳐진 주름은 나가사키(長崎) 구로세(黑瀨) 觀音堂 금동여래좌상이나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과 매우 흡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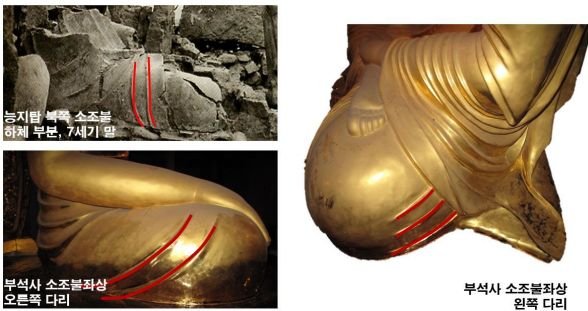
여 부채꼴 주름과 더불어 재질을 불문하고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도 15>.26)

앞서 언급한 불상들에 비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옷주름이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드는 까닭은 14세기에 불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름이 변형 되거나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왼쪽 대퇴부 옆으로는 지면과 평행한 짧은 3가닥의 주름이 있고, 오른쪽 대퇴부 옆으로는 지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올라오는 2가닥의 주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름은 7세기 말 조성된 능지탑 소조불좌상에서도 확인된다<도 16>.

26)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0, 2011, 26~27쪽.



<도 15>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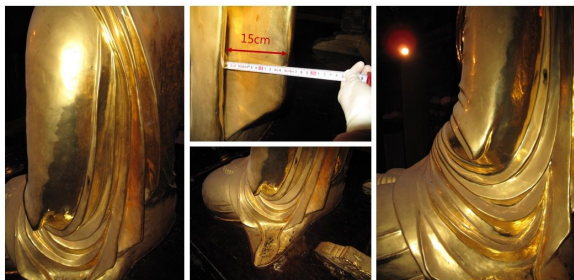
<도 16>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2

불상의 뒷면을 보면 입체적이면서도 탄력있는 대의 끝단 주름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데, 석굴암 본존불이나 해인사 범보전 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이 대의 자락을 자연스럽게 뒤로 넘겼다. 고려 후기 불상에서 보이는 삼각형으로 마무리한 끝단 처리와는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14세기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상호 뿐만 아니라 뒷면의 주름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도 17>.

대의 자락을 바닥까지 닿게 길게 처리한 부분이나, 주름의 너비를 15cm에 달할 정도로 깊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꽤 인상적인데 이는



〈도 17〉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3



〈도 18〉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소조라는 재질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도 18>.

7세기 말 제작된 일본의 当麻寺 본존불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상으로 주목된다<도 19>. 신체에 비해 커다란 얼굴과 짧은 목,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신체 표현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차이가 있지만 당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풍만한 상호,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의 표현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유사하다.²⁷⁾



<도 19> 당麻寺 소조불좌상, 681년경, 높이 219.7cm

소조라는 재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7세기 말에 일본에서 당麻寺 본존불과 같은 자연스럽고 세밀한 옷주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흐르는 듯한 층단형의 옷주름 역시 7세기 말 신라 조각에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 20>.



당마사 소조불좌상, 7세기 말



부석사 소조불좌상 배면

<도 20> 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4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우견편단한 대의 깃은 옷주름을 겹쳐지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대의 깃이 넓게 띠모양으로 표현되는 석굴암

27) 毛利久, <當麻寺の彫刻> 《當麻寺》, 近畿日本鐵道, 1962, 83~111쪽 ; 同著, <當麻寺彌勒佛像と新羅様式> 《佛像東漸: 朝鮮と日本の古代彫刻》, 法藏館, 1983, 152~163쪽 ; 金志虎, <當麻寺金堂本尊の制作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第4分冊,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2010, 179~183쪽.



부석사 소조불좌상



석굴암 본존불, 8세기 중엽

<도 21> 부석사 소조불좌상 착의법 비교 1

본존불과는 구분된다<도 21>.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의 깃 표현은 경주 남산 칠불암 본존불, 김천 갈항사지 석조불좌상, 합천 청량사 석조불좌상, 포천 백운동 철불좌상,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 등 많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더불어 신라지역의 여러 조각경향과 조각을 위한 범본 가운데 신라왕실의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불상으로는 석굴암 본존상을 꼽을 수 있다. 신라 말의 불상들 가운데 석굴암 본존상을 따르는 복고적 경향의 상들은 중량감이나 의습, 상호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대한 체구, 우견편단, 향마촉지인, 대의 끝단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짐(왼쪽 어깨에서 반전되지 않은 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 문경 봉암사 철불좌상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傳보원사지철불좌상, 서울 구기동의 승가사 마애불좌상, 광주 철불좌상,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 등이 이 계열에 포함된다<도 22>.²⁸⁾

28)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불교미술연구》 2, 1995,



〈도 22〉 부석사 소조불좌상 착의법 비교 2

항마촉지인에 우견편단식으로 착의하고 대의 끝단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불상을 ‘석굴암계’라고 한다면, ‘초기 항마촉지인’에 우견편단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이 여러 주름으로 밖으로 접혀지는 유형은 ‘부석사계’ 불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석사계 불상은 나말려초까지 불좌상 조성에 있어 석굴암 본존불과 더불어 하나의 범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계 도상은 IV장에서 화엄전파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수인으로 7세기 말의 아미타불은 대체로 설법인을 취하지만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항마촉지인을 곁하고 있어 손의 형상만으로 본다면 석가불을 의미한다. 수인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순간을, 무량수전이라는 전각의 이름과 그 봉안 위치는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이중적이고 복잡한 교리와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의 成道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으로²⁹⁾ 《大

31~32쪽.

29) 黃壽永 編, <降魔觸地印佛坐像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史, 1987, 73~110쪽 ;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菩提樹下 金剛座眞

唐西域記》는 佛陀伽耶 마하보리사(大覺寺)에 봉안되어 있던 소조항마촉지인 불좌상의 조성유래와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이 唐의 勅使로 인도를 왕래했던 王玄策의 《行傳》에도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像은 彌勒이 스스로 오셔서 만든 것이다. 모든 道俗이 본보기 그림을 그리려고 하였으나 신성스러운 변화는 그리기 어려워서 아직 模寫한 것이 없다. 王玄策 使臣이 거기에 이르러 여러 스님들에게 至誠으로 은근히 請하여 여러 날 道場을 베풀어 참회하고 아울러 온 뜻을 말하여 그 그림을 얻었는데 매우 비슷하였다. 곧 이 像을 위해서 經本이 출간되었는데 열 권이 있다.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전하였는데 그 匠人에 宋法智 등이 있었다. 자세히 聖容을 관찰하여 聖顏을 그렸다. 京都에 가지고 오니 僧과 俗人들이 앞을 다투어 模寫하였다.³⁰⁾

위의 기록을 보면 왕현책 일행이 이 像을 모사하여 唐의 수도로 가져오자 僧俗이 앞을 다투어 모사했다고 한다. 왕현책 일행은 인도에서 보았던 여러 가람과 성역, 존상들을 그려서 책으로 펴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상의 파급 효과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¹⁾ 항마촉지인을 결한 불좌상은 당시에는 새로운

容像을 중심으로-> 《韓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產業社，1981，737~752쪽；同著，《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1989，270~290쪽 재수록；同著，〈玄奘의 인도 여행과 統一新羅 佛像의 새로운 圖像〉《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문예출판사，2003，222~240；이주형，〈보드가야 항마성도상의 前史：불전미술의 〈降魔〉 敍事와 촉지인 불상의 탄생〉《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미술사논문집》，예경，2007，53~82쪽.

30) 《大唐西域記》，《新修大藏經》 권51，916쪽 上中；《法苑珠林》 권29，《新修大藏經》 제53권，502쪽 下，503쪽 上；金理那，〈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韓國古代彫刻史研究》，일조각，1989，270-281쪽.

31) 金理那，앞의 책，1989，270~280쪽；肥田路美，〈唐代における佛陀伽耶金

도상으로 7세기 후반 무렵 신라불교계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용삭 원년(661) 唐으로 건너가 智儼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함형 2년(671)에 귀국하였다. 따라서 그가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인도로부터 전래된 향마촉지인 불좌상의 도상이 장안을 중심으로 중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의상이 귀국할 때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 도상의 불상을 접했거나 가져왔을 개연성이 있다.

7세기 후반 중국에서 조성된 향마촉지인 불좌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는 장안의 大雁塔址에서 출토된 善業泥³²⁾ 불상이다. 대안탑은 永徽 3년(652)에 건립된 것으로, 선업니 불상 역시 이때를 전후하여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7세기 후반에 조성된 향마촉지인 불좌상으로 연대를 알 수 있는 예로는 광서성 桂林의 調露 원년(679)명 삼존불의 주존이 있다. 680년대부터는 비교적 많은 예가 확인되는데, 영류 2년(681)에 조성된 병령사석굴 제 53·54龕의 삼존불상의 주존이 대표적이다<도 23>.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수인은 중대 신라 조각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향마촉지인’으로 보이면서도 석굴암 본존불이나 칠불암 본존불과 같

剛座眞容像の流行について> 《論叢佛教美術史》, 東京: 吉川弘文館, 1986, 155~186쪽: 同著, <玄奘이 가져온 7軀의 佛像에 관하여> 《시각 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2007, 83~99쪽:

- 32) 당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업니 불상들이 서안을 중심으로 상당량 출토되었다. 1920년경에 서안 남쪽의 백탑사 후원의 폐허, 즉 수·당 시대의 지상사 유적에서 100여 점이 출토되었고, 자은사 주변에서도 많은 예가 발견되었다. 불상의 명문을 통해 ‘선업니’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승려들이 입적한 후 화장하고 남은 뼈가루를 진흙과 섞어 만든 흙을 말한다. 선업니 불상은 명문을 동반하고 있는 예를 통해 대체로 多寶佛塔, 印度佛像, 妙色身相등으로 분류된다. 배진달, 《당대불교조각》, 일지사, 2003, 220~221쪽.



선업니불상, 서안 대안탑 부근 출토, 653년경



중국 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 679년



아미타삼존불상, 병령사 석굴 제 53감, 681년

〈도 23〉 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1



〈도 24〉 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2

은 ‘전형적인 향마촉지인’과는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향마촉지인은 禪定印의 상태에서 오른손을 풀어 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왼손은 선정인 상태 그대로 佛身의 중심축에 오도록 표현하고, 오른손은 ‘촉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촉지’라고 하기에는 오른손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도 24>.

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균위석굴 본존상은 왼손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는 수인을 결하고 있다.³³⁾ 이 또한 전형적인 향마촉지인과

33) 이와 같은 초기의 향마촉지인의 예로는 균위석굴 본존상 외에도 蓮花寺 아미타칠존비상의 뒷면의 불좌상을 꼽기도 한다. 그런데 이 상은 오른쪽



<도 25> 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3

는 다른 형태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형태의 수인은 새로운 도상이 전래되면서 기존 도상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변형촉지인’으로 이해되거나, 아미타불을 가리키는 別印으로 명명되는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³⁴⁾ 그러나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비롯해 군위석굴 본존상이나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은³⁵⁾ 향마촉지인 도상의 초기 도입기 형태로 ‘초기 향마촉지인’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도 25>.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석굴암 본존불을 위시한 본격적인 향마촉지인 유행의 전단계로 초기 향마촉지인 도상의 수용·정립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 의상을 통해 화엄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향마촉지인 불좌상’이라는 도상이 함께 받아들여져, 의상

무릎부분이 훼손되었고 왼손은 다리위에 놓지 않은 모습이라서 오른손을 다리위에 올려놓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崔聖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2009, 241쪽, 주 24) 참조.

34) 金理那, 앞의 책(1989), 341~344쪽 ; 文明大, <통일신라 불상조각과 당 불상조각과의 관계>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56쪽. 同著,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 上 원음과 고전미》, 예경, 2003, 41-49쪽, 재수록.

35) 崔聖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2009.8, 241쪽.



<도 26> 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4

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아미타불이면서도 향마촉지인 수인을 결한 ‘초기 향마촉지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견편단을 한 향마촉지인의 가장 이른 예로 한국조각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보수할 1376년 당시에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1280년 보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이 양 속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한 아미타불이 유행하고 있었다<도 26>. 불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하품중생인) 설법인을 따르지 않고 의상 창건당시의 향마촉지인 도상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의상계 화엄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불단을 살펴보면 가장 안쪽에 방형대좌가 남아 있고 이후 목재 수미단으로 2차례에 걸쳐 증축한 총 3층의 구조로 되어있다<도 27>.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형대좌는 가로 2.65m, 세로 2.17m, 높이 1.06m의 크기로 7톤에 달하는 불상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도 28>. 목재 프레임 안쪽으로는 적심석과 기와, 잡석, 진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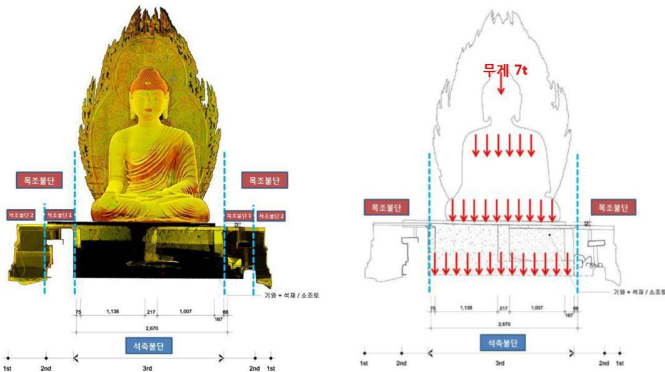
내측 수미단 정면



외측 수미단 정면

사진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27〉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1



사진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28〉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2

을 이용해 공간을 채워 넣었다. 대좌 표면에는 회칠을 하고 금박을 입혔던 흔적이 남아있으나 박락이 심한 상태다. 현재 석조대좌의 왼쪽 귀퉁이는 무너져 내렸는데 14세기 병화를 입을 당시 불두와 함께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 수미단은 불상 보수와 병행해 추가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형대좌는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원형을 추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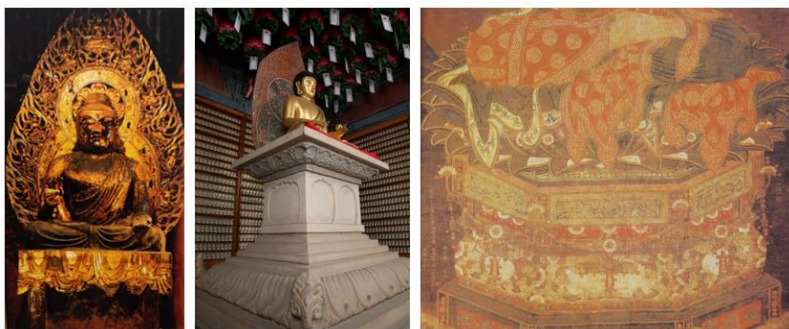
〈도 29〉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3

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도 29>.

만약 1358년 왜구에 의해 불두가 장대석까지 날아갈 정도의 큰 병화를 입어³⁶⁾ 대좌를 새로 조성했다면 장곡사 약사불좌상 석조대좌(국보 제 58호)처럼 고려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귀꽃이나 안상을 이용해 대좌를 장엄하거나 또는 동경 根津 미술관 아미타여래도(1306)의 대좌처럼 높고 화려한 대좌 형태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도 30>. 그러나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방형대좌는 균위 삼존불 본존상의 방형대좌나 673년경에 제작된 계유명전씨 불비상 본존의 방형대좌와 일본 당마사 소조불좌상의 대좌형태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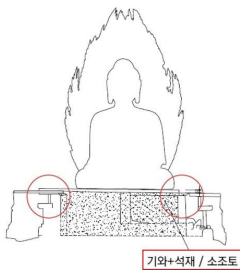
대좌 안을 기와로 채워 넣는 방식은<도 31> 백제 건물지에서 보이는 ‘瓦積’기단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와적기단은 백제 기술이



당마사 소조불좌상, 7세기 말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 석조대좌, 고려 동경 根津 미술관 아미타여래도 대좌, 1306

〈도 30〉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비교

36) <鳳凰山浮石寺改椽記> 元 順帝 18年.



<도 31> 부석사 소조불좌상 외적대좌



靑陽 本義里窯址 외적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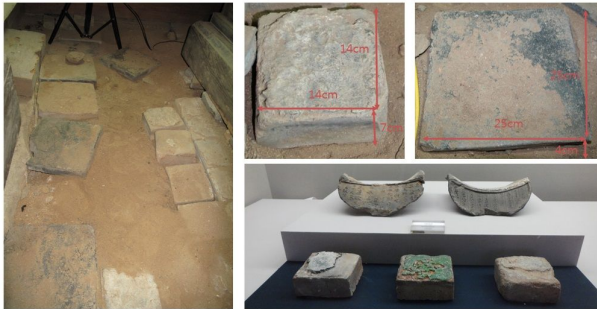


1970년대 능지탑 외적기단(북쪽 소조불좌상편의 대좌 부분)

<도 32> 부석사 소조불좌상 외적대좌 비교

전과된 것으로 경주 낭산 陵旨塔의 기단부 네 면에 안치된 대형 소조 불좌상의 대좌에서 확인된다<도 32>.37) 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방형대좌는 대좌의 형태와 제작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의상이 7세기

37) 姜友邦, <陵旨塔 四方佛 塑造像의 考察-陵旨塔의 復元試論> 《新羅와 狼山》,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7, 1996, 101~103쪽 참조 ; 孫枝銀, <경주 낭산 능지탑 소조사방불상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0쪽. 백제와 신라의 외적기단에 대해서는 趙源昌,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2000, 89~132쪽; 同著, <百濟 基壇 築造術의 對新羅 傳播> 《건축역사연구》 2005, 57~69쪽; 同著, <新羅 瓦積基壇의 型式과 編年> 《新羅文化》 28, 2006, 73~100쪽 ; 김나중, <百濟 泗泚期 寺刹의 伽藍配置와 造營의 特徵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222~223쪽.



〈도 33〉 부석사 무량수전 녹유전

말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수미단 안쪽 바닥에는 크기가 다른 2종의 녹유전이 남아있다.³⁸⁾ 녹유전은 대부분 寺格이 높은 成典寺院 또는 최상의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쓰인 것으로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큰 전들의 크기는 가로25cm×세로25cm×높이4cm이며, 작은 전들의 크기는 가로14cm×세로14cm×높이7cm로 두 종류가 남아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녹유전이 출토된 곳을 살펴보면 浮石寺를 비롯하여 靈廟寺址, 皇龍寺址, 四天王寺址, 感恩寺址, 天龍寺址, 法光寺址 등을 들 수 있다. 녹유전이 통일신라시대 황실사찰에 버금가는 절에서만 출토됐다는 점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7세기에 조성됐음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도 33>.³⁹⁾

38) 전돌 위에 鉛釉를 시유하여 청색, 녹색, 황갈색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39) 강형태 외 3, <통일신라시대 녹유전돌(綠釉磚)의 녹유 특성: 부석사, 천룡사지 및 법광사지 녹유전돌> 《先史와 古代》 22, 2005, 212~222쪽; 《四天王寺》,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09, 49~51쪽 참조; 이한영, 문은정, 김수경, 한민수, 최장미, 정민호, 박지연,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녹유 특성 연구>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180~199쪽.



〈도 34〉 부석사 녹유전과 사천왕사 녹유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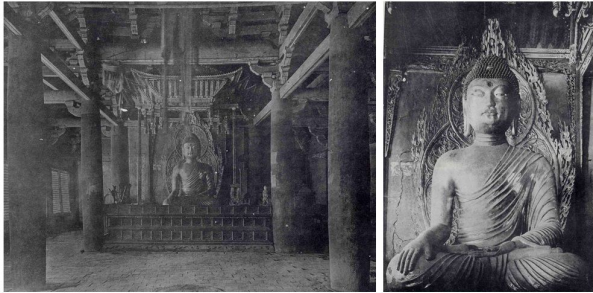
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綠釉千鳥形博과 寶相華文博은 표현과 기법면에서 다르지만 부석사 녹유전과 비교 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부석사 녹유전에서는 사천왕사지 녹유전에서 보이는 보살당초문과 같은 세밀한 문양이 없고, 千鳥形처럼 異形의 형태가 아닌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는 부석사 녹유전이 사천왕사 녹유전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도 34>⁴⁰⁾

사천왕사지 전돌에 대해 藤島 氏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塔址에서 다수 발견되는 異形의 千鳥形博은 아직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다. 이것은 표면에 두께 1mm 내외의 深綠色半透明의 釉藥을 입힌 것인데, 풍화하여 표면이 白色 혹은 黃褐色을 보여주고 있으나 深層은 鮮綠이 아름다워 특이한 刑狀과 함께 주목할 가치가 있다. 諸鹿史雄에 의하면 일찍이 西塔址를 발굴 했을 때 중앙에는 복잡한 唐草文의 大形博을 깔고 千鳥形博을 주변 가까이 일렬로 배치하였다고 한다.⁴¹⁾

40)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一冊, 朝鮮總督府, 1923, 21~23쪽.

41) 姜友邦,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圓融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 I》, 열화당, 1990, 185~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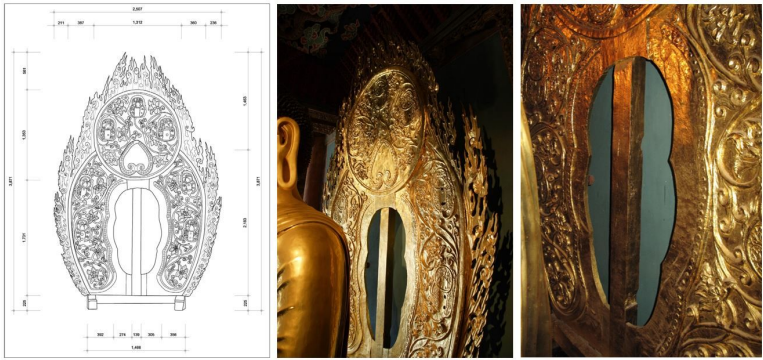


<도 35> 朝鮮古蹟圖譜(1915~1935)

부석사에서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녹유전이 발견된 것을 두 차례 이상의 불사가 진행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사천왕사처럼 중앙에 큰 전돌을 놓고 외곽에 작은 전돌을 함께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1915~1935)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부석사 무량수전 법당 사진을 보면 당시에도 전돌이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마루를 놓은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20세기 초까지도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전돌이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 35>.

부석사 소조불좌상 뒤에는 목조 광배가 따로 제작·배치되어 있으며 <도 36>⁴²⁾ 불상의 위쪽으로는 광해군 10년(1618)에 제작했다는 기록

42)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광배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435년 중창기록을 갖고 있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과 1476년에 제작된 후불벽을 갖고 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에는 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신한 시기는 늦어도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는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1592)으로 16세기 이전의 불전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 변화 양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7세기 재건된 대부분의 불전에는 불상의 광배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며 후불탱화가 일반화되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16세기에는 광배 대신 후불탱화나 후불벽화가 설치된 불전이 대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에 비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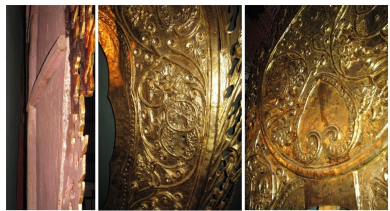


도면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36>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1



<도 37> 부석사 무량수전 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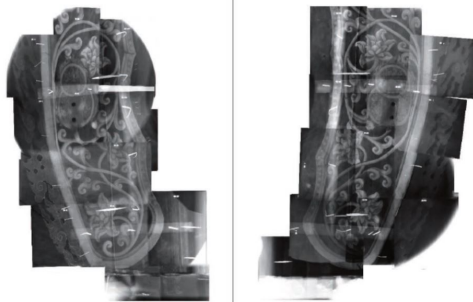


<도 38>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2

이⁴³⁾ 남아있는 보개가 있다<도 37>. 광배 안에는 당초문, 연주문, 여의두문이 세밀하게 배열되어 있고, 광배 테두리에는 화염문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도 38>. 원형의 두광에는 3구의 화불을, 중간이 뚫린 신광 안에는 좌우 2구씩 총 4구의 화불을 부착시켰던 흔적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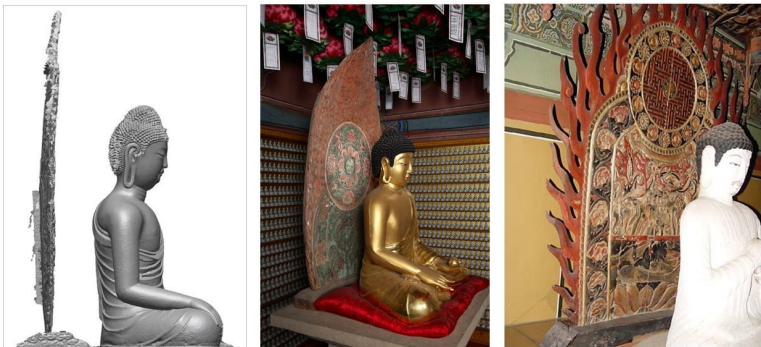
어 봤을 때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는 적어도 16세기 이전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61쪽 참조.

43) “萬曆四十六年歲次戊午五月初十日於閣後芳啣列示後” <無量壽殿 須彌壇上 寶蓋 背面板>



사진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구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39>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x-ray



부석사 소조불좌상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 9세기말~10세기 초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7년
 도면출처: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구역〉, 영주시청·(주)한경문화재보존, 2011.

<도 40>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비교

아있다<도 39>. 신광은 좌우 각각 2개의 판재를 연결하였으며 꺾쇠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화염문은 여러 조각의 나무 조각판을 이어 붙였다. 이처럼 목조광배를 따로 제작해서 불상 뒤에 세워둔 예로는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있다 <도 40>.

IV. 의상의 화엄전파와 부석사 소조불좌상 도상의 계승

의상의 화엄종은 중대신라 이래 수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학과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 의상의 화엄교학은 華嚴一乘法界圖를 중심으로 하는 圓融思想의 철저한 실천으로 요약된다. 즉 조화와 평등 추구를 통해 지위와 신분이라는 세속적인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불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 그리하여 의상은 경주에서 소외된 지방과 일반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포교활동을 했고, 교학적인 연구보다 화엄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치중했다.

또한 의상은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정토신앙을 추구하였다. 의상의 아미타정토신앙은 타방인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에 안주하는 일반적 아미타신앙이 아니었다. 현세중심적인 왕생신앙으로 신라 자체가 이미 정토이자 불국토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는 평생 계율을 지키는 수행인으로서 불교적 평등사회를 지향했고 이를 실천하는 종교운동을 펼쳤다.⁴⁴⁾

의상은 화엄종의 초조로서 신라 이래 고려까지 그 법이 이어져 내려왔고 傳法의 장소가 바로 부석사였다. 부석사는 화엄종찰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았고, 정통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서 부석사계 화엄종은 중국에서 新華嚴이라 불려지던 唐本 《80화엄경》과 貞元本 《40화엄경》이 새로 유입되어 화엄사

44) 南東信,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1996, 61~62쪽; 同著, 《義相의 思想과 信仰 研究》, 불교시대사, 2001, 352~385쪽, 재수록.

상의 전개에 새로운 계기를 맞았을 때에도 의상이 공부한 <60화엄>을 계속해서 주석할 정도로 의상의 화엄교학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⁴⁵⁾ 또, 9세기 말에 있었던 선종의 화엄종 비판에 대해 해인사계에서 華嚴結社를 조직하여 화엄학 및 신앙의 변화를 꾀할 때에도 북악인 부석사계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⁴⁶⁾

의상과 그의 제자들은 부석사 창건을 시작으로 화엄사, 해인사, 범어사 등 전국 곳곳에 화엄10찰을 세우며 신라에서 화엄종 입지를 굳혀갔다. 9세기 선종 개조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시절 부석사에서 화엄 불교를 수학했다는 이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석사가 선종 사찰 조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성주산문의 개조 無染(800~888)은 부석사 體澄大德의 문하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후 入唐하였고, 동리산문의 개조 慧徹(785~861)은 15세인 799년 부석사에서 출가하여 화엄을 8년간 배우고 814년 입당했다. 또한 道憲(824~882)도 9세인 832년 부석사에서 질응의 제자 梵體大德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후 희양산 봉암사를 창건하였다. 折中(825~900)은 15세인 839년 부석사에 나아가 화엄을 배우고 19세인 842년 구족계를 받고 道允 문하로 옮겨 사자산문에 참여하였다.

화엄종찰로서의 부석사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의상의 화엄사상 만큼이나 그 사상을 이미지로 표현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파급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가 창건된 7세기 말은 석굴암 본존불이 조성된 8세기 중엽 보다 1세기 정도 앞선 것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화엄종 사찰 뿐만 아니라 이후의 불상 조성에 범본으로서 지속적인 역

45) 중국 화엄종의 제4조 淸涼澄觀(738년~839년)의 화엄경소가 소성왕 원년(799) 신라에 전래 소개되었다. 《三國遺事》 卷4 義解 勝詮觸髓 條 참조.

46) 김혜완, <신라하다·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호, 2004, 3~9쪽.

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초기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결합한 불상들이 모두 부석사상과 같은 아미타불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도상의 이미지가 불교조각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중요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양식 계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으로 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을 들 수 있다<도 41>. 갈항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도 41〉 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 높이 1.22m, 보물 제 245호

勝銓스님이 尙州 領內 開寧郡境에 사원을 개창하고 石髑髏로 官屬을 삼고 화엄경을 開講하였다. 신라 沙門 可歸가 대단히 총명하고 도리를 알아 傳燈을 계승하고 心源章을 찬술하였으니 그 대략을 말하면 승전법사가 石徒들을 거느리고 論議講演하였다 하니 곧 지금 갈항사요, 그 측루 80여 매는 지금 綱司에 전해지는 것으로 자못 영험함이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⁴⁷⁾

이 기록을 보면 갈항사는 승전법사가 창건한 것으로 승전 법사는 일찍이 중국 唐에 건너가 중국 화엄종 제2대조이자 의상과 동문인 法藏(643~712)의 문하에서 화엄을 배웠으며 孝昭王 1년(692) 의상에게 보내는 법장의 서신을 갖고 돌아온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이다.⁴⁸⁾

현재 경복궁에 있는 갈항사지 삼층석탑 2기 중 동탑의 기단에는 이 두문자를 사용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景德王 17년(758)에 元聖王

47) 《三國遺事》 卷4 義解5 勝銓髑髏條.

48) 李秉燾, <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對하여> 《海圓黃義敦博士古稀記念私學論叢》, 1960

(785~798)의 외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탑 조성의 유래가 새겨져 있어 석불좌상의 조성 시기도 이즈음인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

갈항사 석불좌상은 무릎 부분과 오른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우견편단에 족지인을 취하고 있어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같은 형식인 것이 확인된다. 대의가 몸에 밀착되어 신체가 드러나고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대의 끝단이 왼쪽 가슴과 어깨 부분에서 접혀져 주름을 이룬 표현은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의 깃 표현 방식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나말려초기에는 대의 깃이 삼각형 같은 형태의 도식화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형식을 답습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승전법사가 창건한 갈항사는 직·간접적으로 의상과 관련이 있으며 화엄을 종지로 하는 사찰이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갈항사 석불좌상을 조성할 당시 화엄종 사찰에 맞는 상을 제작했을 것이고 그때 화엄종찰인 부석사에 봉안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범본으로 불상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엄종 사찰 가운데 영월 세달사는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궁예가 청년기에 머물렀던 곳으로, 의상의 손제자 신림이 주석하였고 그의 제자 質應이 起信論을 강의하였던 곳이자 명주의 莊舍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찰이다<도 42>.⁵⁰⁾ 따라서 의상의 화엄사상과 신앙방식은 신림과

49) 文明大, <김천 葛項寺>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上)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363~370쪽.

50) 泰封의 弓裔의 관해서는 《三國史記》 권11 眞聖女王 9年 8月: 《三國遺事》 王曆1 後高麗 弓裔; 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同著, <弓裔의 勢力形成과 建國> 《震檀學報》 75, 1993, pp. 1~34; 이재범,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崔聖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영월, 주전, 평창 옛 지도



‘흥교’ 라는 명문이 새겨진 막새



건물지

<도 42> 세달사(세달사의 옛 사명은 흥교사)

질음을 통하여 세달사에 그대로 전수되고 구현됐으며, 어린 시절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했던 궁예에 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세달사를 비롯한 경북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후고구려(태봉)의 중앙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천 철불좌상을 비롯한 전 적조사지(서운사) 철불좌상 등이 궁예의 활동 지역이던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점은 우견편단에 초기 향마촉지인을 하고 대의 깃이 반전되는 부석사 소조불좌상 형식이 하나의 범본이 되어 후고구려 지역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도 43>.⁵¹⁾

또한 고려 초에 화엄종 사찰로서 융성했던 서산 보원사지의 2.57m 크기의 철불좌상도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을 것으

고찰: 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44, 2002, 29~ 64쪽.

51) 포천철불에 보이는 불상의 장신화 현상은 晚唐期 중국조각에서도 나타나 는 경향으로 불상 신체의 양감이 줄어 평판적인 불신에 허리만 길어지는 예가 泗川이나 敦煌지역에서도 보인다.



포천출토 철불좌상, 나말려초



전 적조사지(서운사) 철불좌상, 나말려초

〈도 43〉 '초기 항마촉지인'에 대의 깃이 반전된
부석사계 착의법을 한 불상 1

로 추정된다. 崔致遠의 <法藏和尚傳>에 의하면 普願寺는 華嚴10찰 가운데 하나였으며, 고려 초에 활약했던 화엄종 승려 坦文(900~975)의 발원으로 증창되었다. <法印國師寶勝塔碑>(978)에 의하면 탄문은 광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건과 광종의 외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종이 즉위하자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석가삼존상을 주조했는데 이 불상이 보원사지 철불좌상으로 추정된다.⁵²⁾

보원사지 철불좌상은 손이 결실 되었지만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의 깃이 반전된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하고 있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도 44>.

보원사지 철불좌상과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 출토 철불좌상 3구 또한 부석사 소

52) 姜友邦, <統一新羅 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 丈六鐵佛坐像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41, 1988, 1~31쪽; 同著, 《圓融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 I》, 열화당, 1990, 282~304쪽, 재수록; 김혜완,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 2004, 1~29쪽.



서산 보인사지 철불좌상, 나말여초

원주 출토 철불좌상, 나말여초

〈도 44〉 '초기 항마촉지인'에 대의 길이 반전된 부석사계 착의법을 한 불상 2

조불좌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³⁾ 이 철불들은 강원도 원주군 本部面 邑玉坪(현 원주시 학성동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부석사 소조불상의 전파와 의상계 화엄종과의 관련성은 철불좌상들이 출토된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도 살펴 볼 수 있다.

原州는 통일신라시대의 北原府(北原京)로 남한강을 따라 남쪽으로는 충주로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여주와 양평을 지나 개경으로까지 연결되는 수운의 要路에 위치하고 있어 각지의 물산이 모이고 조세가 운반되는 등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었다.⁵⁴⁾ 따라서 서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唐의 문물이 水

53)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美術史》 8, 1996, 21~35쪽; 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103~112쪽 재수록.

54) 이인재, <나말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2001, 195~220쪽 ; 林玲愛, <元祐5년(1090)銘原州立石寺磨崖佛坐像小考> 《강좌미술사》 12, 1999, 195~211쪽; 同著,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 조각> 《미술사학연구》 228·229, 2001, 39~63쪽 ;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美術史》 8, 1996.12, 21~35쪽; 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103~112쪽, 재수록; 同著,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사고-> 《역사와 현실》 44, 2002, 29-64쪽; 同著, <태봉지역 불교미술에 대한 試考>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184~ 209쪽 재수록.



〈도 45〉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전파

運을 통해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주 인근의 영춘현에는 의상의 화엄10찰 가운데 하나인 비마라사가 있었고, 비마라사의 위치로 추정되는 영월군 남면과 단양군 영춘면의 경계에 있는 대화산의 동쪽에는 의상의 손제자 신림이 주석하였던 세달사가 있었다. 부석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화엄종 사찰들이 위치한 영춘, 제천 일대를 거쳐 원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일대가 의상계 화엄종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말려초에 경주를 중심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모델로 하는 복고적인 불상들이 조성되었다면, 궁예 세력권이던 중부지역 일대에서는 부석사 소조불좌상 계통의 불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 45>.

경북지역에서도 부석사 소조불좌상에서 보이는 ‘초기 향마촉지인’을 결한 불상이 여러 점 확인된다. 부석사 동편의 폐사지로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은 두부가 결실된 상태인데⁵⁵⁾ 우견편단의 착의에 한번 반전을 준 대의 깃 표현이 부석사 소조불좌상

55) 불두는 현재 부석사에서 보관 중이라고 전한다. 배진달, <봉화 오전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과 같을 뿐더러 주목해야 할 점은 손가락을 완전히 축지하지 않고, 왼손을 몸의 중심축까지 충분히 끌어오지 않은 ‘초기 항마촉지인’의 모습이 보인다<도 46>.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 나말려초



구미 대원사 석불좌상, 나말려초

<도 46> 경북지역 소재 '초기 항마촉지인' 불상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은 부석사 인근에서 조성된

불상인 만큼 직접적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 이외에 ‘초기 축지인’의 모습을 한 불상으로 경북 구미 대원사 석불좌상을 들 수 있다. 대원사 석불좌상의 수인은 균위석굴 본존상의 수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왼손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왼쪽 다리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은 수인을 결하고 있다. 이 역시 전형적인 항마촉지인이 아니라 ‘초기 항마촉지인’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나말려초에 경북 일대에서 발견되는 완전하지 않은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편단우견의 상들이 전해지는 것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소조불좌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최근 x-ray 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상의 목 접합 흔적과 불단

아래 고식의 방형 와적대좌, 통일신라 성전사원에서 보이는 녹유전을 근거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비록 고려시대에 많은 수리를 거쳤다 하더라도 부석사 창건 당시인 7세기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종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화엄의 종지를 지키려고 했던 사찰들에서 상징적 조형물로 부석사계 축지인불좌상의 형식을 따르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라의 향마축지인 도상을 우견편단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을 넓은 띠처럼 표현한 ‘석굴암계’와 우견편단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이 여러 주름으로 겹쳐지거나 밖으로 접혀지는 표현방식의 ‘부석사계’로 나누고, 이 두 계통이 나말려초까지 불상 조성에 있어 범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의상 화엄사상이 유입·수용되는 과정에서 ‘향마축지인’ 도상이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의상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향마축지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초기 향마축지인’으로 추정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견편단을 한 향마축지인의 가장 이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석굴암 본존불 조성보다 거의 1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부석사의 ‘초기 향마축지인’ 도상이 석굴암 본존불 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지녔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모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화엄종찰로서 부석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과급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향마축지인의 수인을 결한 불상들이 모두 부석사상과 같은 아미타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대의 것이 주름지거나 한번 반전된 우견편단에 초기 향마축지인을 결한 도상의 이미지는 불교 조각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와 관련하여 8세기 중엽 조성된 갈항사지 석불좌상과 세달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궁예의 통치권이었던 중부지역 소재 불상이 주목된다.

궁예의 세력권에 소재하고 있는 포천 철불좌상, 화엄10찰 중 하나인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과 원주 출토 철불좌상 등의 상들이 보여 주듯이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하나의 범본이 되어 나말려초까지 지속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경북일대에서 대의 것이 주름지거나 한번 반전된 우견편단에 ‘초기 향마촉지인’을 결한 상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또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이라고 추정된다.

이 글이 부족하나마 한국조각사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 중심의 계보를 확립해 화엄종찰 부석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大唐西域記》，《法苑珠林》，《三國史記》，《三國遺事》，《宋高僧傳》
《新修大藏經》

2. 논저

-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一冊, 朝鮮總督府, 1923.
《(浮石寺)無量壽殿: 實測調査 報告書》, 문화재청, 2002.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사용역》, 영주시청·(주)한경문
화재보존, 2011.
《四天王寺》,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09.
《朝鮮金石總覽》 上, 1919.
姜友邦, 《圓融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 I》, 열화당, 1990.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金理那, 《韓國古代彫刻史研究》, 일조각, 1989.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民族史, 1994.
金相鉉, 《韓國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88.
金元龍, 《韓國 美術史》, 汎文社, 1973.
서영일, 《신라 육상교동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李基白·李基東, 《韓國古代史講座 I》, 一潮閣, 1982.
全海住, 《義湘 華嚴思想史 研究》, 민족사, 1994.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文庫, 1995.

- 文明大, 《원음과 고전미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 上》, 예경, 2003.
- 文明大, 《삼매와 평담미 高麗·朝鮮 佛教彫刻史 研究》, 예경, 2003.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 崔聖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 黃壽永 編, <降魔觸地印佛坐像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史, 1987.
- 姜友邦, <統一新羅 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普願寺址 丈六鐵佛坐像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41, 1988.
- 姜友邦, <陵旨塔 四方佛 塑造像의 考察-陵旨塔의 復元試論-> 《新羅와 狼山》,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7, 1996.
- 강형태 외 3, <통일신라시대 녹유전돌(綠釉磚)의 녹유 특성: 부석사, 천룡사지 및 법광사지 녹유전돌> 《先史와 古代》 22, 2005.
- 高翊晋, 《韓國古代佛教思想史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菊竹淳一, <對馬·壹岐의 朝鮮系彫刻> 《佛教藝術》 95號, 毎日新聞社, 1974.
- 김낙중, <百濟 泗泚期 寺刹의 伽藍配置와 造營의 特徵-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菩提樹下 金剛坐眞容像을 중심으로-> 《韓沽 卍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 金福順, <新羅中代 華嚴宗과 王權> 《韓國史研究》 63, 1988.
- 金福順, <新羅 下代 佛教界의 動向> 《新羅文化》, 1994.
- 金相鉉,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 1984.
- 金知見, <義相 法諱考> 《曉城趙明基博士追慕 佛教史學論文集》, 1988.
- 金志虎, <當麻寺金堂本尊의制作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第4分, 2010.
- 金文經, <樣式을 통한 佛教의 大衆化運動-唐·新羅 關係를 中心으로-> 《史學 志》 4, 1970.
- 김혜원,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 2004.
- 南東信,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1996.
- 南東信,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義相의 思想과 信仰 研究》, 불교시

대사, 2001.

毛利久, <當麻寺의 彫刻> 《當麻寺》, 近畿日本鐵道, 1962.

毛利久, <當麻寺彌勒佛像と新羅樣式> 《佛像東漸: 朝鮮と日本の古代彫刻》, 法藏館, 1983.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 - 坐像을 중심으로 -> 《古文化》 22, 1983.

文明大, <통일신라 불상조각과 당 불상 조각과의 관계>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文明大, <김천 葛項寺> 《統一新羅 佛敎彫刻史 研究(上)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14·15, 1966.

배진달, <봉화 오전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0, 2011.

孫枝銀, <경주 낭산 능지탑 소조사방불상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李秉燾, <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對하여> 《海圓黃義敦博士古稀記念 私學論叢》, 1960.

이인재, <나말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2001.

이재범,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주형, <보드가야 향마성도상의 前史: 불전미술의 <降魔> 敍事와 축지인 불상의 탄생>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2007.

이한영, 문은정, 김수경, 한민수, 최장미, 정민호, 박지연,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녹유 특성 연구>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林玲愛, <元祐5년(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12호, 1999.

林玲愛,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229, 2001.

- 全海住, 《義湘華嚴思想史研究》, 민족사, 1994.
-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 研究> 《美術資料》 33, 1983.
- 鄭恩雨,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韓國의 國寶》, 문화재청, 2008.
- 趙源昌,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2000.
- 趙源昌, <百濟 基壇 築造術의 對新羅 傳播> 《건축역사연구》, 2005.
- 趙源昌, <新羅 瓦積基壇의 型式과 編年> 《新羅文化》 28, 2006.
- 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趙仁成, <弓裔의 勢力形成과 建國> 《震檀學報》 75, 1993.
- 주수완, <항마성도상과 신라 화엄종 미술의 형성 -부석사 무량수전 축지인 불좌상 해석의 몇 가지 문제점-> 《先史와 古代》 37, 2012.
- 中吉功, <浮石寺釋迦如來像に對する考察> 《新羅·高麗의 佛像》, 東京: 二玄社, 1971.
- 崔柄憲, <韓國佛教의 展開>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1982.
-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佛教美術研究》 2, 1995.
-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美術史》 8호, 1996.
- 崔聖銀,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공예 대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사고-> 《역사와 현실》 44, 2002.
- 崔聖銀, <瑞山 開心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고려후기 불교조각> 《한국의 사찰 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 崔聖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高麗史學會, 2008.
- 崔聖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2009.
- 崔聖銀,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 23, 2011.
- 崔聖銀,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百濟文化》 49, 2013.
- 최영희, <신라 고식수막새의 제작기법과 계통> 《한국상고사학보》 70, 2010.
- 許興植, <高麗初 佛教界의 動向> 《高麗初期佛教史論》, 불교학회, 1986.
- 黃壽永, <浮石寺 塑造阿彌陀如來像> 《佛教美術》 3, 1977.
- 肥田路美, <唐代における 佛陀伽耶金剛座眞容像의 流行について> 《論叢佛教美

術史》，東京：吉川弘文館，1986.

肥田路美, <玄奘 이 가져온 7軀의 佛像에 관하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2007.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ABSTRACT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in Yeongju and Propagation the Avatamsaka Icon of Silla Dynasty

Lee, Ju-min

Amitabha Hall of Buseok-sa temple(浮石寺 無量壽殿) enshrines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National Treasure 45) which is 2.75m high. Although this statue deserves to be thoroughly discussed in the sculpture history of Korea, its formation period and academic understanding on it have lacked. True, the remains of the neck junction of the Buddha statue found through recent X-ray studies, the Wajeok pedestal(瓦積臺座) in an antique square form and the brick, green-glazed earthenware(綠釉磚) discovered in Sung-jeon temple in Unified Silla proved that to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underwent numerous repairs in Koryo period. Nevertheless, it turned out that efforts were underway to preserve the prototype of the seventh century when Buseok-sa temple was established. Thus, instead of following a new trend, it was to reflect the features of the Uisang(義湘) era. Even when the Zen Buddhism was popular, some Buddhist temples sought to maintain the philosophy of Avatamsaka sect(華嚴宗). This statue is a symbolic one for these temples, and enshrining Bhumisparśa-mudra(降魔觸地印) of Buseok-sa

temple as the symbol proves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The icon of Silla Bhumisparsa-mudra is divided two-fold: wearing sacerdotal robe and expressing the tip of the collar like a wide band in the ‘Seokgulam Grotto sect(石窟庵系)’ ; and the tip of the collar overlaps in many folds or has a single fold in the ‘Buseok-sa temple sect(浮石寺系)’. These two sects served as original prototypes in forming Buddhist statues until late Silla to early Koryo.

The icon of Bhumisparsa-mudra came to be embraced as Avatamsaka philosophy enters and gets accepted, the icon of Bhumisparsa-mudra ended up being embraced.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formed by master Uisang seemingly showcases a transitional facet of early Bhumisparsa-mudra although it is Amitabha Buddha.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maintains the then icon of when it was constructed by Uisang, and is also the earliest example of early Bhumisparsa-mudra(初期 降魔觸地印) with sacerdotal robe. Then, this is one century older in its formation than that of the Buddhist statue in Seokgulam Grotto. It hints at the possibility that the icon of early Bhumisparsa-mudra in the Buseok-sa temple sect has longer traditions than the one in Seokgulam Grotto, possibly serving as its original prototype.

As for the transfer of the icon of Avatamsaka of Silla Dynasty, the stone Buddha statue in Galhangsa Temple Site(葛項寺址) built in the mid-8th century and the Buddha statue located in the central region ruled by Kungye(弓裔) whose childhood was spent in Sedal-sa temple(世達寺) were spotlighted in the study. Sedal-sa temple was where Kungye was from who formed the Hu Koguryeo(後高句麗) and is also where Uisang’s grand-pupil

Silim(神琳) stayed. Religious methodologies of Uisang and Avatamsaka were inherited to Sedal-sa temple through Silim, and probably influenced Kungye who lived as monk at the temple as child.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was well known throughout the northern par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ncluding Sedal-sa temple, so it is assumed that it was Kungye through whom the statue was naturally propagated to the central region of Hu Koguryeo(Taebong 泰封).

Pocheon stone statue of Buddha located in the central region, the stone statue of Bowon-sa temple site in Seosan as one of Ten Hwaom Temples(華嚴十刹), and the stone statue excavated in Wonju show the continuous influence of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of Buseok-sa temple as an original prototype was carried on until late Silla to early Koryo. Moreover, that the collars of Buddha statues foun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tatues wearing sacerdotal robe where the Buddha statues' collar is wrinkled or folded once with a note of early Bhumisparsa-mudra is assum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eated clay Buddha statue.

Key words : Yeongju Amitabha Hall of Buseok-sa temple, Uisang, Silim, Avatamsaka sect, Ten Hwaom Temples, Wajeok pedestal, Early Bhumisparsa-mudra, Kungye, Taebong, Sedal-sa temple, green-glazed earthenware, Seokgulam Grotto.

논문 투고일 : 2013. 12. 2. 심사 완료일 : 2013. 12. 15. 게재 확정일 : 2013. 12. 21.